

CONV/RGENCE

#5

시간 교차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Corey Lewis

완벽한 인생

RIOT FORGE

오브라이언 · 스미스 · 차모라 · 브라이트빌

필트오버와 자운

구조 측면도

필트오버와 자운, 이 두 도시는 첨단 기술 발전의 중심지입니다.

위쪽에 자리한 필트오버는 모든 것이 정밀한 시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말끔하고 부유한 기술의 천국 같은 곳이죠.

그 아래 위치한 자운은 필트오버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첨단 기술의 어둡고 불쾌한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무법 천지이기는 하지만 덕분에 누구나 자신의 꿈을 제재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바로 위쪽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웃 필트오버의 그늘에 눌러 있지만, 자운인들은 확고한 의지와 독창성으로 삶을 버텨냅니다. 지하도시 자운의 짙고 음울한 독성 스모그를 견디며 더 좋은 삶을 찾고, 그런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싸웁니다.

- 제이스의 작업실

필트오버
공요

최상층

중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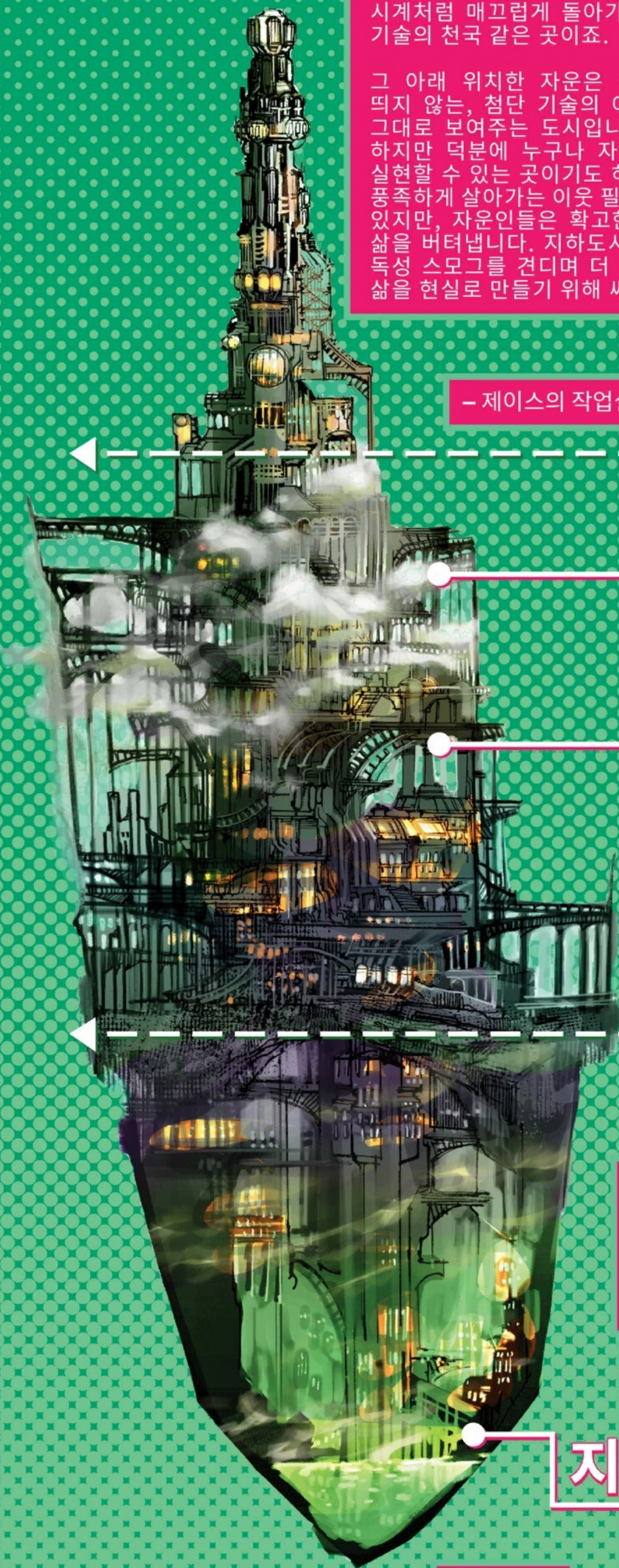
- 승리 축제
- 반 클레그 산업

자운 상층부
음울후 공요

- 에코의 아파트
- 잃어버린 아이들의 은신처
- 빅토르의 오래된 실험실

지하동굴

아트
Eric Canete



에코는 자운의 소년 발명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운은 첨단 기술에 능숙하면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죠. 에코의 발명품 중 최고는 단연 **Z-드라이브**입니다. 주변의 시간을 되돌려 몇 초 전의 일을 되풀이할 수 있죠. 에코는 이 Z-드라이브를 써서 어떤 일이든 자기 마음에 맞게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실수에서 인생이 걸린 문제까지, 그 어떤 것도요.

하지만 시간을 입맛대로 조작하다 보면 자신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결국 에코 주변의 세계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간/교차(**Conv/rgence**)>의 앞선 이야기 격인 이 코믹에서, 에코는 시간을 되돌려 몇 초 후의 미래를 마음대로 바꾸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여행이 주는 새로운 기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개입하지 않고 시간이 그냥 흐르게 둔다는 것은 에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CONV/RGENCE

시간 교차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완벽한 인생

존 오브라이언

글

디트리히 O. 스미스

레이아웃

디트리히 O. 스미스 (1-4편)

크리잼 자모라 (5편)

펜슬 작업

디트리히 O. 스미스 (1편)

윌리엄 윌포드 (2, 4편)

크리잼 자모라 (3, 5편)

잉크 작업

카일 브라이트빌

채색

Studio RAM

레터링 (유럽 언어)

Comiccraft 의 타일러 스미스

레터링 (유럽 언어 외)

코리 루이스

표지 아트

사브리나 퍼치

카이트 게리 (1-3편)

에디터

몰리 마한

코믹 내러티브 총괄

메리 검포트

감사한 분들



© 2023 Riot Games, Inc. RIOT FORGE, CONV/RGENCE: A LEAGUE OF LEGENDS STORY and any associated logos are trademarks, service 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Riot Games, Inc. Developed by Double Stallion.

오늘 꽤
썰썰한데,
레미.

그러게.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한 걸
왜 버리는지 몰라.

이런 걸 몇 개만
더 건지면 진짜로
유용한 걸 만들
수—

아직도 저렇게
으스스하게 멍한
표정이잖아.

음... 안녕,
애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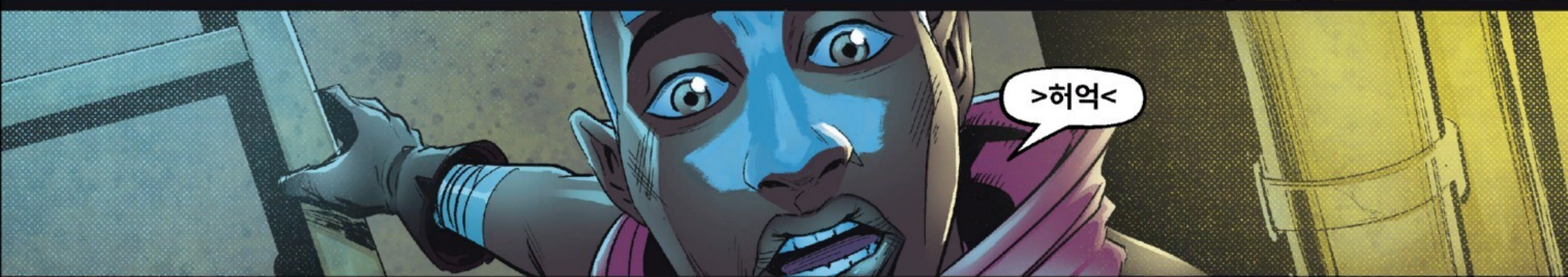
인사는 좀
받아주지?



얘들아, 어디
있니? 아무도
없어?

있잖아! 그
증강체... 그거
빅토르가 만든
거야!

우리 아빠도 당하셨어!
아예 깡통 괴물 군단이
만들어졌단니까. 빨리
여기를 요새로
만들어서--



>히익<



안녕, 에코. 우리
증강체가 없는 친구들을
동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



너도 해 줄게.
마침 와줬구나.



스키즈! 레드! 액시멘더!
증강체가 문제야!
빅토르가 너희를 조종하고
있단니까!

퍼억

으악!



이러지 마...
안 돼,
레드—
정신차리란 말야!

이러면
빅토르가
이기는
거야!



하나된 정신은 이미
이겼어, 에코. 모두가
완벽해져야 해.

허악한 육신은
버리는 거야.

으음...
으음!

도와줘...



허악하다고?





쿵!
쿵!
쿵!

빅토르가 만든
괴물들이 우릴
찾아냈어! 떼거리로
몰려왔잖아!



아래층에서도 바닥을
뚫고 올라올 것 같아!
에코, 어떡하지?

나라고 알겠니?
나도 모르겠다고!

콰앙!
콰앙!

콰앙!

혹시 이걸
써보면...



그걸
어디서...?

레미랑 고물 주우러
갔다가 쓰레기장에서
찾았어. 네가
되감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말했지만...



완벽한
사람이란
없으니까.
그렇지?

부다
다
다

우와. 느낌
끝내주는데.





잃어버린 아이들
은신처 부근...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줘요!

으아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모든 약점을 떨쳐버리는
자유를 주겠다!

하나된 정신을
받아들여라! 완벽을
받아들여라!

절망하지 마라!
고통은 금방 끝날
것이다!



안녕,
빅토르.

오랜만이네.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
옛 파트너.

자신이 택한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길 바라네. 내가 만든 기계가
결국 우월하다는 걸 알게 되었겠지?

그런 건 모르겠고, 오래 전에
끝냈어야 하는 일을 끝내러
왔을 뿐이야, 옛 친구.



이번에는...

내 눈으로 그 끝을
봐야겠어.



자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결함이지.



으윽!

4차 퇴감기

쳇. 저 어댑터를
뜯어내는 건
어렵겠어.

그럼...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이야압!

터억

휘익

으음...

이럴 수가. 저것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잖아. 마치... 내가
무슨 작전을 쓸지 다
알고 있는 느낌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쿵

동화하라.

억!





그거... 로켓
무릎 패드 한
짝이에요.

로켓...
무릎 패드?

무릎은 추진 로켓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야.
이걸 달고 날았다간
머리부터 착지할 거라고.

이 기기의 용도는
무엇이지?



저것 봐, 에코. 다들
우리가 만든 바보 같은
발명품에 정신이
팔렸어.

이 방법 좋겠는데.
저들보다 더 똑똑해질
수가 없다면 더
바보스러워질 수는
있겠지.



자아, 여기 이
쓰레기들은 무슨
용도가 있다는
거일까?

궁금하지 않아?!



이건 뭐지...
바닥에 접착제를
칠한 신발?



이런 신발을 신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완벽하지가 않잖아.

이 터무니없는
옷은 대체 무슨
용도야?

새총 바지예요. 그걸
입고 내 몸을 새총처럼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다고요.



어차피 이 끈을
고정하려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하잖아. 그럼
굳이 그런 용도로
이런 장치를 쓸
필요가 있나?
설명해 봐!

저기...
인간은 가끔 자기
아이디어가 더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가끔은 아무
용도나 목적이
없는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잖아요?



엑시맨더 네가 만들던
작품 같은 거 말야.
기억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장치 말야!

그리고 레드, 너
10초 만에 옥수수 튀김
한 사발을 먹어치웠던 거
기억해? 그냥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스키즈 너도, 머리로 캔을
찌그러뜨렸잖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말야.



퍼억

으익!



...

아야!

세상에, 아프잖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냐.
머리
윗부분으로
박는 거라고.

야! 내 작품은 아름답고
깊이가 있다고!

그냥이라니! 난
모험 정신을 발휘한
거라고!



애들아...?
애들아!
돌아왔구나!



에코, 네가 해냈어!
애들을 빅토르에게서
해방시킨 거야!

아직 축하하는 일러.



아직 온 도시가 저
난리잖아. 빅토르가
아예 자기 로봇 군단을
다 끌고 왔어.



빅토르는 전송기로
저들을 조종하고 있어.
아빠한테 그걸 쓰는 걸
내가 봤거든.

그걸 뺏을 수만
있으면...

우린 빅토르
근처에도 못 갈
거야.

저런 로봇들
수백 명에
둘러싸여 있을
텐데.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

세상에, 저런
바보스러운 장치를
대체 몇 개나 갖고
있는 거야?



저런 바보스러운
장치가 몇 개나
필요한데?



아래쪽 거리...

저리 좀 비켜!



이해가 안 돼.

저건 용도가 뭐지?

엇?

용도가 없어.

완벽하지 않아.



이건 제3의 팔이에요.
머리에 쓰고, 양손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 손이
하나뿐이게
되잖아.
완벽하지
않아!

아니라고요!



제이스?!

그래, 자운에 왔다. 이제 만족하니?
내가 만든 쓰레기를
치우러.

네. 예전처럼 다
부숴버리지는 말아
주시죠.

아빠가 이 난리통 속에
계시니까요.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

대체 어디 가는
거냐? 멈출 것을
명령한다!

실험이 잘못되는
건 딱 질색이라고.

영리한 속임수군. 하지만 오래
가진 못한다.

상관없어.
금방 끝낼
테니까.

하아아압!

즈
윙
윙
윙

그래. 육체가
실패하니 기계에
의존하는군.

하지만 더 훌륭한 기계가
있는 법. 하나된 정신은 계속
배워나가니까. 우리는 이미
진화했으나 더 진화할 것이다.

그러니 그 장치를 켜 보라.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너의 선택은 언제나
실패할 거다.

몇 번이나 시간을
되돌려봐도
마찬가지일 거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알았지--?

내겐 기계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등의 그 장치가
무엇인지 잘
보인다.
완벽에 도전하다니,
제법이야. 성능은
초라하지만.



너도 완벽을 원하지
않느냐? 하나된 정신에
합류해라. 그러면
완벽을 얻는다.



싫어.

인생은 잘
돌아가는 기계
같은 게 아냐.



놀랄 일도 많고, 불시에
안 좋은 사건이 닥치고...
그러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



즈으으

감상적인
헛소리군.

그런 인생은 결국
덧없이 짧을 뿐.
진화를 거부하는
자는...
...사라져라.





몇 시간 후...

이봐! 문
열어!

진정하세요... 저는 빅토르가
이 기술로 자운인 여러분의
정신을 훔치려 했다는 걸
정말이지 전혀 몰랐습니다!

(웅성웅성)

잘라낸 내 팔, 아직
버리진 않았겠지!

여러분들 증강체를
정신지배가 불가능한
정상적인 설정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줄을
서주세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의
건강과 관련된 일은 아빠가
직접 결정하셔야 하는 건데. 전
그냥 아빠가 잘못되실까봐...

이제 다시는
개입 같은 거 안
할게요.

고맙구나. 안
그래도 난 이제
다시는 병원에
안 갈 거니까.

눈 증강체를
검사해
봐야죠—

그냥 해본
소리다. 네
얼굴 표정이 볼
만하구나!

다음 주에 증강체 복구 전문가를
만나기로 약속했단다.

어... 그 사람, 돈을
얼마나 받겠대요?

돈은 안 받아.

그냥 나한테 오시기만 하면, 좀더
자연스럽고... 뭐랄까, 덜 사악한
증강체로 바꿔드릴 거다.

우와...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감사하다고 해.
우리도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어...
그러면...

감사해요, 제이스.



아직 감사하긴
이르다.

폐기장을
찾아봤는데,
빅토르의
흔적이 없어.
툼니 한 쪽도.

그러니 내 연구를
계속해야겠지.



도움을 받아서 말이야.
좀 산만하지만 마법공학 하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 후배는
어떨까?

어떠니? 위쪽으로
와서 나와 일하자는
거다.



제이스... 씨? 님?
정말로 기뻐요.
하지만...

사양할게요. 전 여기
아래쪽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빅토르가 또
그 못생긴 금속 얼굴을
디밀고 나타난다면,
절 찾아오세요.



방금 제이스의 제안을
거절한 거니?

잔소리는
참아 주세요.

우리 아들, 천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판단력은 별로란
말이야.

저도 알아요.
아빠. 안다고요.

끝